

전남도, 사우디와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협력 모색

사우디 리야드서 'KOR-KSA 에너지워크' 개최... 기업 간 MOU 체결 김 지사, 해상풍력단지·그린수소에너지지점 등 소개 탄소중립 기여 강조

전남도가 두바이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전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속적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소개하며, 탈석탄정책을 추진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였다.

사우디는 지난 2016년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중심지로 '비전 2030'을 발표하는 가운데, 100%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자급자족의 스마트도시인 네오시티 건설 계획을 추진중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사우디 도시농촌주택 개발부장관과 관련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오는 2028년 열리는 제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의 여수 유치 활동도 벌였다.

전남도는 5일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박준용 주사우디 한국대사, 사우디 그룹기업 알코레아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KOR-KSA 에너지워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전남도 등의 주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전남 기업 간 MOU 체결이 이뤄져 향후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전남지역 대표 에너지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히 이날 행사에서 세계 최

대 규모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 에너지지점 조성사업 등을 소개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신개척지로 잠재력을 갖춘 연안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준비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세계 110여 개국이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중인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통해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로 유지한다'는 파리협정을 지키자고 공조한 점에 주목, 에너지 신산업 허브도시인 전남의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5년 뒤 열릴 COP33 유치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일대 1085만㎡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 1GW 규모의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이 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인근 구성지구에서 조성되는 RE100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과 RE100 데이터센터파크를 운영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 사업, 국내 최대 육상 태양광 발전소 운영 사업,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50곳) 조성 계획 등을 설명했다.



중동 아시아를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2023 KOR-KSA 에너지 워크' 행사에 참석, 주요 내·외빈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개막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량도 제시했다. 전남의 경우 태양에너지 잠재량(1008.3GW), 풍력에너지 잠재량(167.5GW) 모두 전국 1위 지역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4.67GW·전국 1위), 풍력 발전설비 용량(0.43GW·전국 3위), 태양광 발전량(6.03TWh·전국 1위), 풍력 발전량

(0.58TWh·전국 3위) 등도 압도적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여건과 혁신적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에너지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

심지 전남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탈석유·첨단기술 중심의 경제 대전환을 계획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며 "전남과 리야드, 한국과 사우디 간 상호 우호의 역사를 써내려가자"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를 빛낸 우수정책 '올해의 베스트 10' 시민이 뽑는다

21일 시청서 스타정책 경진대회 시민·전문가 등 330명 현장 평가

광주시가 시민 중심의 평가 방식을 강화해 올해의 우수 정책을 선정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1일 시청에서 '2023 광주를 빛낸 스타 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15개 후보 정책을 평가한다.

시민평가단(300명)과 시의원·기자·교수 등 전문가 평가단(30명)이 현장 평가를 통해 '2023 올해의 베스트 10'을 확정한다. 매년 연말 우수정책을 선정했지만 시민의 직접 평가는 일회성 설문조사에 그치고 전문가·공무원 중심 평가로 이뤄졌다.

시민 평가 비중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5개 주요 사업 중 51개 후보 사업을 선정해 지난 4~11월 시민 온라인 설문·현장 투표 등을 해왔다.

대상 사업은 신경제·활력·돌봄·안심 혁신과 교육 등 5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신경제 도시 분야'는 100만평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광주역 일원 호남권 최대 규모 스마트업 창업밸리 조성, AI데이터센터 구축·AI영재고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AI혁신거점 조성 등이며, '활력 도시 분야'는 대한민국 최고의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 침과 힐링의 공원도시 광주 조성(민간공원 조성사업), 광주시립수목원 개원 및 운영 등이 선정됐다.

또 '돌봄 도시 분야'에는 누구에게나 돌봄안전망 '광주다움 통합돌봄', 장년세대 인생2막 지원 '50+ 종합지원체계 확대',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촘촘한 돌봄체계 강화 등이, '안심 도시 분야'에는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증액 및 2단계 구간 건설공사 조기 착공, 탄력 받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도심 고속도로망 확충 및 혼잡도로 적기 개선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혁신·교육 도시 분야'에는 노후관 정비 강화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깨끗한 수도물 공급, 가뭄위기 대응, 대체수원 확보 등 장단기 전략 마련,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 등이 올해의 우수 정책 후보로 평가를 받게 됐다.

광주시는 4월 온라인 시민플랫폼 '광주ON' 등에서 시민(3453명)과 공무원(462명) 투표를 통해 1차로 30개 후보 사업을 선정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민 현장평가와 지역사회 리더 평가도 진행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평가를 통해 우수정책은 더욱 확산시키고 주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 포상금 최대 5억 원으로 상향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 신고는 누구나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다.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 이익 등 6대 공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고, 공익 신고 대상 법률 471개를 위반하는 행위로 확인되면 범죄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포상금 상향과 동시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부정수급 환수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주어지는 보상금을 최대 30%로 늘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총력

고흥 육용오리농장 확진...초동방역팀 투입·집중 소독 등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해 전체 오리농장 219호에 대해서도 11일까지 일제 검사할 예정이다. 또 과거 다발 지역인 나주, 영암, 무안, 함평, 고흥, 장흥 6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일 2회 이상 소독하고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고흥 발생농장은 육용오리 39일령 2만20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지난 3일 오리 폐사가 늘고 있다는 농장주의 신고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가 진행됐으며,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확진됐다.

전남도는 의심축 신고 접수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또 전남도 현장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4일 검출 단계부터 발생농장 육용오리를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했다.

4일 전남도 내 계열사 4개소와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 조치출하 등을 당부했다. 발생계열 도축장과 가금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방역대 해제 시까지 매주 환경검사를 할 계획이다.

강요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가금농장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철제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아신기, 의심 축 발견 시 가까운 가축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 등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차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업 오후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중앙신용정보